

#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수행기관·지자체 평가서 최고등급 'S등급' 영예 안아  
공익형·시장형사업 등 일자리 제공... 각종 실적 우수

청주우암시니어클럽(관장 김현숙)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지자체 및 1,268개 기관 중 1차 심사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심사는 전체 수행기관 중 사업추진 실적(40%), 사업성과평가(60%)에 따라 전국 수행기관별 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차 심사는 사업내실화(60점), 혁신사례(40점), 지자체와 수행기관간 협업노력 등의 가점(10점)으로 구성된 지표점수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형사업(스쿨존 등하곶길, 공공복

지시설 지원, 청소년 선도봉사, 노노케어 등 9개), 시장형사업(할머니손맛 반찬전문점, 수라간, 배달이신, 푸드시스템 등 12개) 등 21개 사업단 1090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정량·정성 등 각종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매년 진행되는 전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청주우암시니어클럽은 2010년 창업모델형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8년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 부문 대상, 2019년 S등급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일자리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김현숙 관장은 "그동안 참여에 열정을 쏟아주신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지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기 좋고, 활기 넘치는 지역을 만드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우암시니어클럽은 할머니손맛 반찬전문점 등 2019년 기준 21개 사업단에 약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고령자친화기업 (주)할머니손맛 운영을 통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노인들의 풍부한 생애 경험을 활용하여 보람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충북도 3년 연속 '자살예방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표창... 지역현황 분석 맞춤형 사업 등 고평가

충북도는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자살예방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자살예방의 날 우수기관은 전국 16개 기관으로 충북은 충청북도(광역), 제천시, 옥천군 3개 기관이 자살예방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충북도는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전담인력 확충, 전국 광역 최초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는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된 생명지킴이는 충북도에서 자체 개발한 활동 웹 시스템(봄봄시스템)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역할을 추진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살수단 차단을 위해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번개탄 판매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캠페인, 교육, 홍보 등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과 함께 지역 주민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확충해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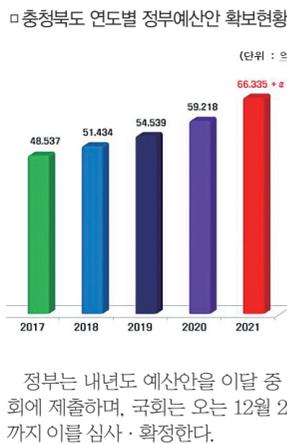
# 충북도 내년 정부 예산 6조6335억원 확보... 역대 최대

지난해 대비 12.1%↑... 역대 최대  
감염병 대응·재해예방 신규사업 추진  
복지·여성분야 1조8942억원 최대

충북도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지역 대표 SOC 사업이 대거 반영됐고 복지, 산업경제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분야 예산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월 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예산 안에 충북 예산 6조6335억원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 5조9218억원보

다 12.1%(7117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최종 확보액 6조854억원과 비교하면 9.0%(5481억원) 많은 액수다.  
분야별로는 복지·여성분야가 1조89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OC분야 1조5937억원, 산업·경제분야 1조1220억원, 농업·산림분야 8652억원, 환경분야 4786억원, 소방·안전분야 1157억원, 문화·관광분야 1065억원 순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코로나19와 수해 등 각종 재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도약을 위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78억원)과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10억원) 사업이 추진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재해예방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첨단동물 활용 감염병·항암 의료제품 평가지원(10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5억원) 등 관련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충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 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어린이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충북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대비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겨 8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어린이(2002. 1. 1. ~ 2020. 8. 31. 출생)이다.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 어린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나 보건소는 코로나19 문제로 방문 전에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2회(두 번) 접종대상자는 처음 접종 후 최소 4주 간격으로 두 번째

접종을 해야 한다.  
1회 접종대상자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 무료접종의 초기 소림 현상과 코로나19 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앱, 전화예약 가능)과 대상자별 집중접종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증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국가인권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보호전문기관 실시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최정목)과 충북도부부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영희)이 주관하는 노인인권교육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16년 1만3521명 → 20년 2만

632명, 52.6% ↑)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돌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실시가 어렵고 온라인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발원에서만 실시해 효과적인 교육시행차원에서 그동안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개설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충북도는 21일 청주시 소재 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했고, 14일부터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inoinedu.or.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신청 플랫폼을 통해 세부 일정을 안내하고 시군에서도 시설별로 안

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감수성 제고, 인권 침해예방 및 대응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연말까지 1회 4시간씩 총44회의 교육을 통해 2,200명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정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기관·단체 코로나19 후원금 기탁. 충북도는 지난달 27일 도지사직무실에서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충북청원경찰협의회와 코로나19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 255-0504, 253-0504 FAX: (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 제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24일부터 1인 10만원 지원

### 135억원 규모 지역화폐 '모아' 지류·카드 형태 제공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4,9) 28일(5,0)에 맞게 신청 가능하다. 또 지원금은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며 지류형, 카드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은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가능하며 카드형은 지역상 품권 모바일 앱(chak)을 설치 후 카드를 신청해 우편 수령 후 2일

이내 충전 가능하다.

지원금은 제천화폐 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시 제천화폐를 자발적으로 지원금으로 기탁하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등 차질 없이 준비해 완벽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지역경기 부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제천시가 지난달 20일 아동친화도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제천시(시장 이상천)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천시는 지난달 20일 이상천 제천시장, 시의원, 아동참여위원,

청소년참여위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1층 현판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모든

아동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지방정부를 유니세프에서 인증한 도시를 말한다.

시는 유니세프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 전국에서 45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였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아동친화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모든 아동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 구현에 힘 쓸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6개 분야 18개 전략사업(핵심과제)을 중심으로 아동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제안한 의견을 아동정책 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진천군,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앞장

### 도내 첫 사회복지협의회·대한적십자사와 맞선 취약계층 700여명에 생필품 등 효율적 지원 기대



유열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과 송기섭 진천군수, 이명환 대한적십자사 진천지구협의회장이 14일 군수실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진천군은 14일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열), 대한적십자사 진천지구협의회(회장 이명환)와 함께 군 취약계층 및 복지사가

지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해 양 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주지역 청소년들이 자전거 하이킹으로 모은 기부금 1천 8백여만원을 드림하우스에 기탁했다.

#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사용해주세요"

### 자전거 타며 기부한 충주 청소년들 '눈길' 150km 왕복 '하이킹 챌린지' 진행... 1800여만원 기탁

충주지역 청소년들이 자전거 하이킹으로 모은 기부금을 자신보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데 기탁해 아름다운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 주고 있다.

기부금 모금을 위해 청소년들 11일 충주교육지원청 본청 중회의실에서 (사)청소년미래대(대표 허경회)와 '2020 자전거하이킹 기부 챌린지'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4번째 진행되고 있는 '2020 자전거하이킹 기부 챌린지'는 충주교육지원청과 (사)청소년

미래대(대표 허경회)가 공동 주최하고 친구 청소년 센터가 주관했다. 충주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기부활동 프로젝트인 '자전거 하이킹 기부 챌린지'는 개인 후원 336명과 단체 61곳(민간13, 기업 32, 기관16)이 참여해 민·관·학이 함께 어우러진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기부 행사다.

이날 기부금 기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방역 기준을 준수해 행사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 약식으로 진행했다.

김영환 교육장은 "이러한 건강한 기부 문화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교육 가족으로 확대되어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음성군, 생명지킴이 '생명사랑마을' 운영

### 소이면 6개 마을 선정... 상담 치료·병원 연계 서비스 등 제공

음성군이 '생명사랑마을' 지정·운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군은 소이면 6개 마을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 우울·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군은 음성지역자활센

터,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등 2개 유관기관과 자살 예방을 위한 민간 서비스 연계 및 상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생명사랑마을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군은 소이면 6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사랑마을 프로그램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우울 증 척도(CES-D, SGDS-K)와 자살척도(SBQ-R) 검사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벌여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생명사랑마을 지역주민 292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 척도를 검사해 분석한 결과 약 11%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비대면 서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분키우기, 일기장 쓰기 등 명사사랑 꾸러미를 지원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살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층 상담과 병원 연계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군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잠재적 고위험군의 신속한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으로 자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음성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 음성군 보건소는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을 통해 난

<b>충북사회복지신문</b>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충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보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은 음성군민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며,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의 일부분인 부담금이 지원 된다.

또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고 보청기 지원이 필요한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1인당 131만 원 한도로 보청기도 지원한다.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진료비 영수증, 금액이 표시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각검사결과지, 통장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 음성군 보건소에 각 읍·면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 청주시,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청주시가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남동에 '청주시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를 만든다.

연면적 45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이 센터는 내년 4월 착공해 같은 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은주 장애인지원팀장은 7일 "센터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단기거주 시설"이라며 "주거와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

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30일 이내 기본으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남성면에 365 장애인 돌봄센터 1곳을 운영 중인 청주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권역별 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7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롱센터, CJ수원반점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자운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충청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예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김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레이스, 금맛식품, 리온알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푸드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주어탕, 좋은아침, (주)게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유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허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홀플러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우어,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월시티점), 이츠굿해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은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버식품, 자연솔푸드, 무드글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우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우유,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신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랑칸타빌점, 율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등,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현해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정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점지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배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신떡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안역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어를, 홀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안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생사), (주)월드이십일 에이치규, 자연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점,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판(주), 무외에 두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플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충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충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숲 풀밭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충평점, 델리엔 충평점, 그린유통, GS25 충평대리점
- 과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과산집과, 신선나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배오베이커리, 두레주르과산점, 파리바게뜨과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천당토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벤유통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유유(보은점), (주)서해물교,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지자연,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떡방, 김수혁, 델리엔(이월점), 에스앤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우유통, 델리엔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와유통, 삼일상회, 서울유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이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대성점, 푸른촌, 풀이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크리프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시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송식품, 서울유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섀디푸드, 대상청정원

# 영동 독립유공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독립·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13만원 인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신설, 연간 20만원 상품권 지급

영동군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군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명예수당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을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간 처우 개선비 20만원을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인 대상이다. 군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준다.

군은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명예수당을 올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옥천군 김재중 군수와 보건소 직원들이 마음품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 옥천군보건소, 생명존중 '마음품 챌린지' 캠페인

### “자살없는 행복한 옥천 만들기”

옥천군보건소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존중 홍보·캠페인 '마음품 챌린지'를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달 12일 옥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석환 센터장을 시작으로 이달 7일 김재중 옥천군수까지 7개 기관과 직원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자살예방사업 협력기관에서 자살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내용의 홍보 영상과 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했다.

보건소는 관련 영상 및 사진을 옥천군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에 게시해 군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 보건소는 옥천군 자살예방 브랜드인 '마음품'을 활용해 노인 자살예방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마음품 협력기관 지정, 마음품 상담차량 운행, 마음품앗이(생명배달) 활동, 마음품 안내판 및 로고라이트 설치, 마음품 응원엽서 제작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제1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제1회 충북 자살예방사업 성과대회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0년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해 자살예방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마음품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자살예방사업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주민의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자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증서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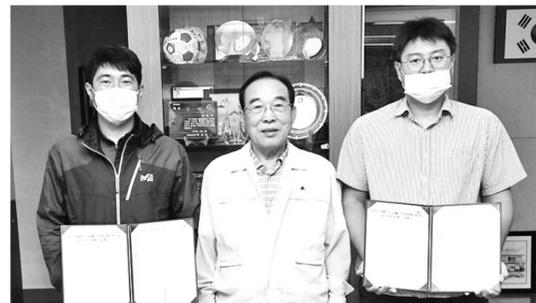
### 45명 출산모에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 지원... 출산장려

보은군은 7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대상 출산모 2명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증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생아 어머니 대신 참석한 아버지에게 전달됐다.

군에 따르면 2018년 1월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이날까지 총 45명의 출산모가 보험증서를 받아 연금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이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모가



정상혁 보은군수는 7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두 가구에 연금보험 증서를 전달했다.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소 3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여성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인구증가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연금보험 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이밖에도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괴산군, 전 군민에 마스크 19만장 배부

### 읍·면 직원 확인 1인당 5장씩 이상 통해 배부

괴산군이 전 군민에게 마스크 19만장을 배부한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우행 우려와 충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

군은 읍·면 직원 확인과 마을 이장을 통해 마스크 19만장을 배

부한다.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1인당 5장의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마스크를 신속히 배부해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돕고 다가올 추석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세 차례에 걸쳐 44

만 장의 마스크를 배부해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계속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 증평군 유아 가정 내 흡연자 48% '심각'

### 군보건소, 흡연실태조사... 흡연부모 금연지원 프로그램 추진

증평군 보건소가 유아 가정 내 흡연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월에 788명의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내 흡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가 흡연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내용은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흡연기간, 흡연장소, 금연 시도율, 유아의 흡연예방 교육의

필요성 등이다. 조사결과 377명(48%)의 유아 가정 내 흡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흡연자중 358명(77.2%)이 아버지며 그 외에 조부모, 어머니, 친척 등 다양한 구성원도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장소는 80% 이상이 가정 밖으로 집계됐지만 몸에 남아있는 담배부산물에 의한 유아의 간

접 흡연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소는 유아 모발 니코틴 검사를 통해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알려 부모의 금연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흡연 부모의 금연지원을 위해 금연 클리닉, 금연 걷기 동아리 등 금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한다.

또한 조사결과 흡연예방교육 실시에 대해 96.8%가 찬성하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보건소는 이달 중 온라인을 통해 아동의 흡연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 교육은 증평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유튜브에 '증평군청'을 검색하고 구독하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과 마술쇼로 이뤄져 금연에 대한 흥미를 적극적으로 유발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의 폐해를 막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부모의 금연”이라며 “유아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은기초푸드뱅크 추석 선물꾸러미 전달

### 지역 저소득층 가구 250명에게 식료품 등 지원

보은기초푸드뱅크는 추석명절을 맞아 21일부터 지역 저소득층 가구 250명에게 식료품·생필품 세트가 들어 있는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선물꾸러미는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천300만 원을 지원받아 마련됐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은 직접 라면, 식용유, 화장지 등 5만 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전달했다.

보은기초푸드뱅크는 지난해에도 약 4억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1만8천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1만여 명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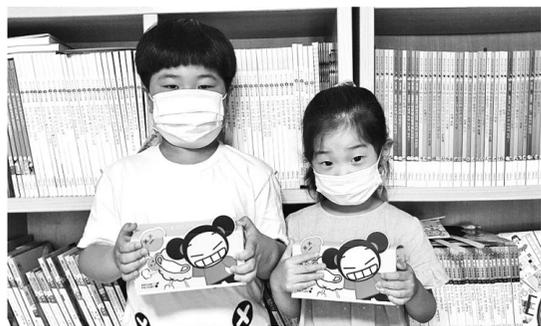
구왕회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

려운 이웃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며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준비한 작은 선물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지난 2월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에 지게차 1대, 냉동탑차 1대, 차고지 신축 등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괴산군 미취학아동 코로나19 방역키트 지원

### 아동 800명에 1인당 2만5000원 상당 방역물품 전달



괴산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키트를 미취학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괴산군이 군내 미취학 아동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키트를 제작해 배부했다.

방역키트 배부 대상은 2014년

부터 2020년 출생한 만 7세 이하 미취학아동 800명이다.

군은 이들 아동에게 택배로 방역키트를 전달했다.

방역키트에는 국산 소형 덴탈 마스크 30장, 휴대용 소독제 4개 등 총 2만5천 원 상당의 방역물품이 담겼다.

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게 방역키트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군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감염 예방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미선 군 주민복지과장은 “괴산군의 미래인 아동들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앞장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복지부,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추경

### 긴급생계지원 55만 가구 3509억원 · 일자리 287억원 아동특별돌봄 1인당 현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 위주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 일자리 제공,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우선, 실직과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급 3509억 원을 본다.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며 1회 한시 지급이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

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단, 다른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에는 287억원이 사용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및 휴·폐업을 한 사람들에게 2개월간 월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11월~12월). 이후 자활사업과 연계

를 검토해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급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한다.

밀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총 532만명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을 지급하며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이달 내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교 등 약 280만명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공개하고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권익위 콜센터(110) 등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 가족돌봄 10일 · 한부모 휴가 15일 연장

### 근로자 1인당 기준 10일→20일 · 한부모는 총 25일 사용 노동부 '기간연장·사용 사유' 고시... 비용 4차 추경 포함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

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무급휴업 · 휴직 30일 이상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 지급 요건 완화... 유급휴직 지원금 끊긴 기업에 유용

앞으로는 기업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업·휴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

춰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다가 지급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는데 지급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기간 만료 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만료 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

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재택근무제 활용도 장려할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휴직률이 높아지는 데 대응해 비대면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3월 77.7%에 달했던 정부 일자리 사업 휴직률은 6월 15.1%까지 떨어졌지만, 8월 들어 31.7%로 다시 상승했다.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유형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인)	정부지원금(비율)		본인부담금(비율)		증감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가형	75% 이하 (356.2만원 이하)	8,407원 (85%)	8,901원 (90%)	1,483원 (15%)	989원 (10%)	△494원
나형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5,440원 (55%)	5,934원 (60%)	4,450원 (45%)	3,956원 (40%)	△494원
다형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1,484원 (15%)	4,945원 (50%)	8,406원 (85%)	4,945원 (50%)	△3,461원
라형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3,956원 (40%)	9,890원 (100%)	5,934원 (60%)	△3,956원

##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확대

### 연말까지 최대 90% 보조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연말까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

는 가정이다.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현재 시간당 9890원으로 책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신청 유형(가~라형)에 따라 40~90%까지 정부가 보조해 준다.

기존 정부 지원금 비율은 15~80%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지원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 75%

이하인 가정은 기존에 정부가 85%를 보조해 1483원을 내던 것을 정부 지원 비율이 90%로 늘어나면서 989원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 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3년

### 11월부터 1년→3년... 여가부, 가족센터·상담인력 확충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오는 11월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기존에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 용자가 아이돌보미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 돌봄·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지역별 가족센터를 올해 62곳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26곳을 추가로 연다.

아울러 가족 갈등과 가족 문제로 인한 우울감·스트레스 등을 상담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의 상담인력은 모두 306명으로 증원하고, 위기 상황에 부딪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은 9곳을 더 늘려 내년에 모두 8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가구 사고 감지장비 보급

### 10만대... 화재·낙상 등 사고 시 소방서에 신속 알림

보건복지부는 화재, 낙상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 대를 올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보급한다.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에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심박·호흡 활동량감지기, 조도·습도·온도감지기, 태블릿PC 기반 통신단말장치(케이트웨이)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있다.

장비를 설치하면 화재, 낙상, 실신 등 응급상황 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호출 신호를 보내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비는 여러 감지기에서 수집한 대상자의 심박·호흡, 수면시간

정보 등을 토대로 응급상황을 판단하게 된다.

장비 이용자가 직접 응급버튼을 눌러 소방서로 구호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응급관리요원과 생활지원사에게도 동시에 알림이 전달된다.

이용자는 장비로 생활지원사와 통화할 수 있고 치매예방운동 등 각종 교육동영상과 날씨 정보 등도 볼 수도 있다.

예정이다.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종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중복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청주시공무원 83%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

(사회복지 분야)

## 청주복지재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연구보고회’ 절반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근무환경 개선 필요

청주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83.1%가 민원인으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우울·불안·불안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한 비율도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복지재단은 지난달 31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김경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 이재숙 청주시 복지국장,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연구보고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재단은 사회복지 업무 담

당 공무원의 안전과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는 공무원 4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4개 구청,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현장 조사, FGI 등으로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은 대부분 기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성일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더 큰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폭력 행위의 이유는 ‘복지서비스 탈락에 대한 불만’이 38.5%로 가장 높았다. 피해 공무원들은 민원인 폭력

의 영향으로 트라우마 형성, 과도한 음주, 업무 병담화, 휴직, 근무지 변경 기피뿐 아니라 유산의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민원인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데다 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대응 방법에 있어 개인과 기관 모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민원인 폭력을 상급자와 조직에 알리지 않았고, 폭력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담당업무 변경 등의 적극적 조치는 1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한 특약보험을 청주시에서 일괄 가입해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기관은 10%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보호 조치 매뉴얼’을 비치·관리하는 곳도 19.1%에 그쳤다.

이날 방혜선 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과 대응, 보호차원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방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인 폭력 예방 차원으로 민원인 폭력 대처 역량 강화 교육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 청원경찰 및 보안요원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인 폭력 대응시스템 구축과 민원인 폭력 실태 집계 및 DB화, 보호차원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시스템,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 경찰·소방공무원과 같이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을 위한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이날 중 최종 연구보고서에 담겨 발간될 예정이다.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와 청주 자생한방병원이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취약 어르신들 삶 건강·행복으로 가득차길”

### 청주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자생한방병원 업무협약 한방진료·건강 강좌 등 연계 통해 지역사회복지 발전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중)는 4일, 청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과 지역 사회 취약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및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한방진료 제공과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취약 어르신들

위한 건강 강좌, 병원 이용 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호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 복지 발전과 대상 어르신 및 직원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 관점들과 근육통으로 고통을 바탕으로 대상 어르신들을 위해 한방 파스 3000장 265만원 상당의 물품을 나눔 활동의 일환으

로 기탁했다.

최우성 병원장은 “취약 어르신들의 삶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번 나눔과 협약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 자생한방병원은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척추디스크 비수술 치료 및 척추·관절 질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사회 환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수해성금 100만원 기탁

북부 지역 돕기 위해 직원들 자발적 마련 “큰 피해 입은 수재민에 작은 위로 되길”



충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7일 충주시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충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광훈)이 7일 충주시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부 5개면 지역을 돕기 위해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수해로 입은 피해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 분야에서 큰 도움을 주신만큼 북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동군청소년센터 급식꾸러미 지원

### 12월 말까지 매달 진행 예정

영동군청소년지원센터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이 센터는 최근 여성가족부 급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꾸러미 지원을 했다.

이번 급식꾸러미 지원은 청소년들의 결식을 방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불어 ‘사랑해, 너남~’이라는 사업 명처럼 지역사회가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급식꾸러미 지원은 지난 8월 20일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매달 진행할 예정이며, 관내 누구라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영동군청소년지원센터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다.

## 충북도, 예비위탁가정 수시 모집

충북도는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실직, 가출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보호·양육하는 예비위탁가정을 수시 모집한다.

가정위탁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로 위탁가정은 위탁부모 자격 확인 후 선정된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적합한 소득과 종교의 자유 인정, 25세 이

상(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교육 5시간 이수, 가정환경조사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예비위탁가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위탁가정에 선정되면 위탁아동을 배치 받고 위탁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

선정된 위탁가정은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접수

### 비대면으로 진행... 이수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환)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파트너 감사와 함께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

도 등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모든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cbr.or.kr)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 “콩나물 기르면서 무료함 달래주세요”

### 영동군노인복지관, 지역 내 460여명에 키트 전달

영동군노인복지관(관장 서정길)은 지역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46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콩나물 키트를 전달해 호응을 얻고 있다.

콩나물은 다른 식물에 비해 비교적 실내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무료함을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건강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지역 노인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정성의 결과물이자 건강먹거리인 콩나물을 이웃과 나누며 독거노인들이 긍정적인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노인복지관은 사후관리 차원으로 대상 노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들이 재차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정길 관장은 “코로나블루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얻고, 작물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



영동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군내 어르신들에게 콩나물 키트를 제공했다.

정감과 일상생활의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군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휴관 중이며 홈페이지에 어르신들을 위한 응원릴레이 모집과 신속건물 홍보영상 등을 게시하며 노인들의 정서적 지원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원 편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예산안 규모)

□ 2020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

□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20년(82조 5269억원) 대비 9.2%(약 7조6267억원) 증가  
- 회계별로 예산은 '20년 대비 9.0%(4조 6408억원), 기금은 9.6%(2조9859억원) 증가  
- 사회복지 분야는 '20년 대비 9.4%(6조5699억원), 보건분야는 8.2%(1조5699억원) 증가

## 주요내용

### 1.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 확충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 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 '20년 3회 추경) 940억원, (21년안) 1,314억원

### 2.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정부지원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 책임의료기관수(권역/지역) : (20) 12/29개 소(추경 포함) → (21년) 15/35개소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 위해, '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 지역 자살예방 예산 27% 증액

\*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예산 : ('20년) 1,029 → ('21년) 1,311억원(+282억원, 27.4%)

### 3.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 폐지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 20%로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5~13.4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지급(월 30만원)하여 청년층 자활 등 지원

### 4. 미래 보건복지 대응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

\* 보건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20) 5,278억원 → (21) 7,912억원 (49.9% 증가)

국립중앙의료원(600개소)·다학제 돌봄센터(450개소)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52~58만 명)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 내용

###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 (검역)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 심사대 구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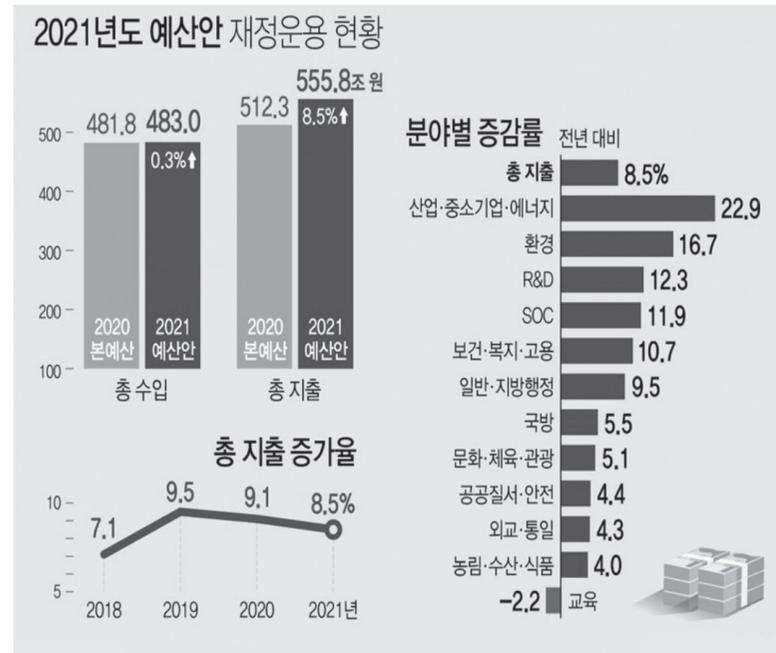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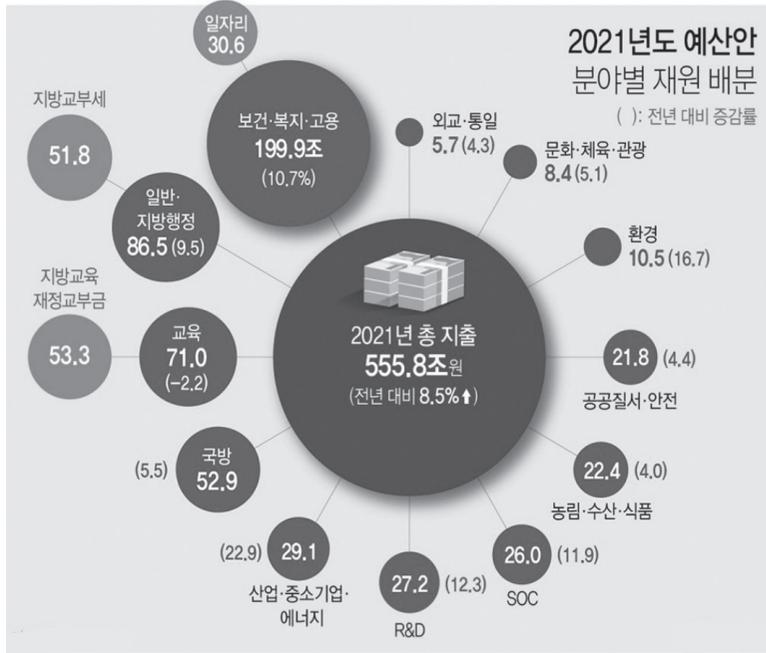
\* (20) 인천공항(1터미널) 6개소 → (21년) 인천공항(2터미널+2개소), 김포공항(+1개소)

- (진단·검사)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25~52억원),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

\*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 질 관리 및 교육,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특성 분석 예산 신규 반영

- (역학조사)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7~20억원)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및 교육 강화

\* 역학조사 현장지원,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



## 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555조 8000억원의 16.2% 차지

## 보건위기대응역량 강화·공공의료 확충 등에 주로 편성... 코로나 치료제·백신에 1314억 투입

###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증감	
			증감액	%
총지출(A+B)	825,269	901,536	76,267	9.2
◇ 예산(A)	515,094	561,502	46,408	9.0
◇ 기금(B)	310,175	340,034	29,859	9.6
◇ 사회복지(A)	695,618	761,317	65,699	9.4
○ 기초생활보장	122,338	132,186	9,848	8.0
○ 취약계층지원	33,837	37,677	3,840	11.3
○ 공적연금	274,111	303,411	29,300	10.7
○ 사회복지일반	85,094	85,136	42	0.0
○ 아동·보육	166,323	188,588	22,265	13.4
○ 노인	13,915	14,319	404	2.9
◇ 보건(B)	129,650	140,219	10,569	8.2
○ 보건의료	27,694	32,231	4,537	16.4
○ 건강보험	101,956	107,988	6,032	5.9

### 공공의료 확충

\*\* (역학조사관 정원) 중앙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

○ (감염관리)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의료 관련 감염관리

\*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13→42개소

\*\* 표본감시기관 및 감염관리 : 상급종합 등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224→420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 : 17.5억 → 29.3억, 중환자실 간호 인력 : 52명 → 67명

○ (국립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 확충 (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

○ (호흡기전담클리닉) 증상으로는 코로나 19와 구분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1000개소)

\* 동선분리, 환기(음압설비), 개인보호구 등 시설·장비 구비

○ (치료제·백신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

\* (치료제·백신, 1,314억원) 치료제(627억원), 백신(687억원)

\*\* (방역물품·기기, 165억원) 방역장비 진단 기기 고도화,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

○ (감염병 연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원) 지속 추진

-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원) 등

###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487만6290원)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에 따라 가구원수별 증가율 상이(1인 가구 4.02%, 2인 가구 3.21% 등)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 5,038→7조 2,305억원, 11.2%),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을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안전확인, 교육(영양·건강), 일상생활(병원동행, 장보기), 사회참여 지원 등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1→9.9만 명), 단가 인상(13,500→14,020원), 중증장애인지원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 (발달장애인지원) 주간활동(4~9천 명), 방과후활동 대상자(7000→1만명) 확대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탈수급 지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39세) 자활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확대(5→13.4천 명)

\* 본인 저축액 10만원 당 30만원 매칭하여 3년간 1440만원 자산 형성 가능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지급(7,820명→8,035명, 최대 3년) \* 보호종료아동 대상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원

○ (자활사업)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일자리 5만8000개 운영 및 자활급여 단가 인상

○ (지역사회 통합돌봄)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시범사업 계속 추진하고,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 시행

\*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동시 제공

○ (사회서비스원) 공공립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3개 신설('20년 11개소→'21년안 14개소)

○ (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복지기획, 관리 기능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 유익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20년도에 이어 전달체계 시범사업 계속 시행

\* (20년) 10개 시군구(6개월, 27억원) → (21년) 10개 시군구(12개월, 52억원)

○ (복지 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 효율화

\*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민간과 공공의 복지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제공 (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22년까지 총 구축비 1,907억원)

### 미래 보건복지 대응

○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 확대

\* 보건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19년) 5,278 → ('21년 안) 7,912억원 (+2,634억원, 49.9% 증가)

○ (재생의료)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월)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운영

\* 재생의료 R&D 예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21년) 100억원

·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 (21년) 64억원 (21~'30년 총사업비 5955억원)

○ (데이터 플랫폼)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의료기기) 범부처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원), 국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53억원)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37억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16억원)

○ (혁신신약) 국산 신약개발 지원 위한 R&D 추진

\* 전주기(후보물질 발굴~사업화) 국가 신약개발(151억원), 국가합동신약개발(33억원) 등

\* 한국형 NIBRT 권선텐·강사진 양성교육 등(30억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21억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10억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7억원)

○ (보육교육인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 명 확대 배치(5.2만 명→5.8만 명)

○ (어린이집 확충) 한국판 뉴딜 일환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 공공어린이집(신축, 리모델링 등) 확충(550~600개소)

○ (지역돌봄체계 강화) 다학제돌봄센터 450개소 추가 설치(500~95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4169개소)

○ (고령친화산업 육성)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23억원),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40억원, 신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기술개발(21억원),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생활기반 리빙랩 구축 및 운영(9억원) 등

○ (디지털 돌봄)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200개소, 27억원) \* (20년) 100개소 14억원(추경) → (21년) 200개소 27억원

○ (치매) 치매전문병동 5개소 추가 확충(총 65개소, 47억) 및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20) 30억원 → (21년) 87억원·치매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예방·치료기술 개발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2020 사회복지의 날 소고(小考)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2020년 9월 7일은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식, 세미나, 백일장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

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모든 행사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19를 대했을 때는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조만간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봄을 맞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기까지,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안고 살아야 하게 하고 있다.

위기상황이 올 때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계층이 있다. 바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우리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가 가져온 후유증은 사회적 약자들을 더 위협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

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위기상황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후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필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흔히 반대말처럼 생각될 지 모르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필자 또한 위험과 기회는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다.

위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코로나19로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위기상

황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대응 매뉴얼이 시급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회복지현장의 교육환경도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면교육 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에, 양질의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부끄럽고 싶은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활동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코로나19에서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수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정신건강

정신·신체 건강 위해 알아야 할 6가지 기술



연현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너무 너무 예쁜 가을 하늘입니다.

정말 예쁜 가을 하늘이 마음을 더 상송송하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보이는 밤나무에 밤은 아주 실하게 영글었습니다.

그때도 가을은 우리에게 자연의 기적을 이렇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곧 과학도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에 많은 것이 있다지만 그 중에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먹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도 거리의 식당들이라고 하며 호황을 누리는 것도 음식 배달이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먹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출이나 여행 등 실의 활동이 줄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있으니 유행하는 말이 '확전자'입니다. 그렇다보니 인터넷에는 '홀트레이닝', '다이어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며, 이 비교를 통해 열등감, 죄책감 등 다양한 감정이 나오고 이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에리조나대학 연구팀은 자존감을 지키며 다이어트 하기 10계명을 내놓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평소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덜 민감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체중을 보다 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생활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며 "체중을 줄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비만이 국민들의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국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자신의 몸 이미지가 어느 상태인지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대적이고 사회적이면서 다양한 요소와 관점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즉 아름다운 꾸준히 변화합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넷째, 스스로에게 보상합니다. 상을 만들어 자기 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했을 때 스스로에게 상을 줍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 노력한 자신에게 이벤트를 마련해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친구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자신을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연락을 잘 유지하는 것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다루기 힘들고 팍 막힌 것 같은 순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체중을 줄이는 노력은 굉장한 인내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도중에 잠시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체중이 늘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만 왜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극히 정말 극히 드문 일입니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지금부터 자신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보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 이미지를 지금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현장의 목소리



박예린

대전시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내가 대학교 입시 면접시험을 준비할 때의 일이다. '복지'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했을 때 복지의 한문 뜻이 모두 '복'이라는 것에 놀랐었다. 복지(福祉)는 복 '복', 복 '지'이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복이라는 단어로 강조되니 '복지를 누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내가 사회복지자에 지원한 것을 뿌듯해하며 면접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자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누군가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그 사람을 돕고 돈도 버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 이웃을 돕지만 우리는 일상

이 누군가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노인복지관에서 지금까지 6년차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다.

누군가 내게 직업을 물어보았을 때 "사회복지사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시네요. 봉사 많이 하시겠어요"라고 말한다. 때로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있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맞다. 내가 정말 속상한 건 '봉사'라는 단어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직은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고 불렸으나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고시 자격시험에 해당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사회복지학사전에서 '자원봉사'의 정의를 보면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통 재정적인 보상 없이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종종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독특한 사람,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욕구 파악해 그들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감정노동을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때로는 상식 밖의 일을 경험할 때도 많다. 봉사자는 결코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

전 세계 4분의 1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취득자 수가 넘쳐나 국민 자격증이라는 별명을 붙여 현재 전 세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400만명이라고 하며 이중 100만 명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1998년에서 2018년 사이 124배나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종종 본인의 직업 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데?"라는 낯선 지식이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고시 자격시험에 해당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해주

고 싶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사회복지실천론을 가르쳐주시던 교수님은 늘 우리에게 "너희는 전문가"라고 강조하셨다. 지금 수업의 내용은 다 기억하지 않지만 교수님의 짧고 강한 한마디가 지금 내가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게 만든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 중에서 "라떼는~"을 외치는 안착한 끈대 사회복지사도 있으며, 평생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보다 노후의 질 높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은 제천의 60세 이상 보충 어르신들을 주로 만난다. 이중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건물주 어르신도 많다. 나는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해 최고의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빠른 시일내에 전문직을 떠돌았을 때 '의사, 변호사, 교사, 사회복지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오늘도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며 누군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고 당연한 것들이 가장 그리운 요즘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의 복지 일상을 되찾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한다. 화이팅!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홀닥터 사업 안내

법률홀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라혜영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hyra21@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홀닥터



법무부



충청북도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

Q) 저는 목졸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고하고 제 연락처를 드렸는데,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물림 사고시 법적 문제

해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거나 한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47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목졸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데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견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숙)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영숙, 이하 다사랑회)는 지난 8월 17일 청주시 우암동 평화상가 새로

단으로 위촉돼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대상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정보 제공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재가장애인 재택고용사업
■ 신청대상: - 청주시 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 19세(고등학교졸업예정자)이상
■ 장소: -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 한울타리 작업장 - 재가장애인 가정 내
■ 모집기간: 상시모집(※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043-252-9720)
■ 참고: www.woorinet.or.kr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 (1인기준)
- 훈련생: 훈련준비금-40,000원 (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비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 모집기간: 상시모집
■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 주관: 우리들정신건강센터
■ 문의: 043) 267-5835, 285-5835
■ 참고: http://www.woorideul.or.kr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승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사피엔스4.0]국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사다리어저씨 모집안내
■ 신청자격: 만10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모집인원: 연간 5명(연차 별 확대 예정)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20만원 지원(협의 후 확정)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apiens.or.kr)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ocean@sapiens.or.kr) 제출
■ 문의: 사피엔스4.0(070-7005-6077)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문동 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 참고: https://www.bokji.net

[희망나눔 주주연대]로 ·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밀알복지재단]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내용: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www.miral.org)
■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070-7462-9135)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사업
■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0.5.27.(수) ~ 12.31.(목)까지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사랑의열매&마중물]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2020.12.20.(일)
■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상훈련을 실시

[여승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자원 봉사자 모집

- ▶ 프로그램 업무보조
관리센터 :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845-7505
▶ 일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835-4288
▶ 중증장애인 버킷리스트 봉사
관리센터 :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845-4544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 해광의료재단 충북병원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60-8200

- ▶ '너나들이' 동년배 상담 봉사
관리센터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16-9810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73-5075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857-5960
▶ 원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84-0103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67-4590
▶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 충북남부아동전문기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731-368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아산재단 대학(원)생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설립 이념에 따라 1977년 설립되어 사회복지 지원사업, 의료복지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복지 관련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모주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혁신적·융합적 아이디어

심사기준 창의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공모대상 대학(원)생 (전공 무관)

유의사항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asanwelfare@amc.seoul.kr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기획안 각 1부
※ 서류 양식은 아산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에서 다운로드

·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단체 모두 지원 가능하며, 단체 지원은 팀원 수를 5명 이하로 한정함
· 표절 및 아이디어를 도용한 프로그램의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해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상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 정부·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자에 대해 재단은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 재단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접수기간 2020. 9. 1(화) ~ 11. 20(금)

시상내역 최우수 1명 300만원 / 우수 2명 200만원 / 장려 3명 100만원

심사 - 시상절차



문의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3010-2566/2565)



복/지/만/평

문제

이창신 www.bokmani.com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